

반딧불사과, 베트남도 반하다

황인홍 군수 일행 현지 대형마트서 관측행사

무주군은 지난 7일과 8일 베트남 하노이 빅씨 마트(Big C Mart)와 메가마트(Mega Mart) 등 대형마트에서 반딧불사과 관측행사를 벌여 현지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날 관측행사는 최근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에 반딧불사과의 인지도를 심어 베트남 남부에 이

어 북부로도 수출관로를 개척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과 군 의원들, 그리고 무주군 관련 공무원들과 농협 관계자들은 시식 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으로 현지 고객들의 입맛과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마트에서 반딧불사과를 맞본

전 득 응옥(38세, 하노이)은 "사과가 굉장히 달고 사각사각하니 맛이 좋아서 앞으로는 자주 사먹고 싶다"라며 "오늘은 3kg를 샀는데 무주반딧불사과가 새겨진 오토바이 헬멧도 경품으로 받아서 기분도 좋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딧불사과 30톤을 베트남에 수출할 예정으로 이번 관측행사가 베트남 수출길을 넓히는데 가교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홍 군수 일행은 관측행사 후 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사장 김창국)에 들러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한 협조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군수는 "반딧불사과에 대한 현지 반응이 생각보다도 훨씬 좋아서 자신감이 생긴다"라며 "반딧불사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남아 수출 관로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인데 베트남이 중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행들은 6일 하노이 응에안성 노동위 담당자와 개인 사업자들을 만나 계절근로자 파견과 관련한 내용들을 협의했으며 반딧불 사과 시장조사를 위해 하노이 식품박람회도 참관했다. 8일과 9일에는 박닌 인근의 한국식품 제조공장과 하노이 전통시장에도 방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지난 7일과 8일 베트남 하노이 빅씨 마트와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반딧불사과 관측행사를 벌여 현지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진안군, 지역산림계획 수립

2038년까지 중장기적 주요 목표별 기본 방향 마련

진안군은 지역산림자원을 활용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산림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산림경영계획의 기준이 되는 20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군은 전체면적의 76%가 산림인 대

표적인 산림지역으로 이번 지역산림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건강한 산림과 함께하는 희망진안'이라는 비전 아래 2019년부터 2038년까지 중장기적 주요 목표별 기본 방향의 틀을 마련했다.

첫째는 조림 및 숲가꾸기를 통한 경제·공익적 가치가 있는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신기후 체제에 대비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

축이다.

둘째는 효과적이며 경제력 육성 및 관리, 고품질 단기 소득작물 생산 확대와 상품 경쟁력 제고, 장기·안정적인 산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셋째는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산림복지 기반을 조성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숲의 확충과 산림 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한 전국 제일의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과 넷째, 선제적 산불 예방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 산림병해충 예방 강화와 자연친화적 방제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진안군 산림 구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전북대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집

장수군이 이달 20일까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북대와 연계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수납전문가 2급, 타로카드 상담사 2개 과정이 운영된다.

수납전문가 과정은 장계면 장수군

립도서관, 타로카드 상담사 과정은 장수읍 한누리전당에서 각각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수납전문가 과정 20명, 타로카드 상담사 과정에 25명이다. 프로그램은 이달 26일 개강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30일까지 매주 화·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

된다.

참여 신청은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vo.la/P7sq>)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이며,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063-350-2167)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홍삼한방타운

진안홍삼한방타운·마이산청소년호스텔 위탁운영자로 한국고려홍삼조합 선정

진안군은 지난 7일 산악초타운에서 진안홍삼한방타운(홍삼사과·밭), 마이산청소년호스텔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고려홍삼조합(주)를 최종 위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한국고려홍삼조합(주)는 전문성 및 재정능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 성공 가능성 평가에서 고르게 높은 평점을 받아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고려홍삼조합(주)는 2015년 12월부터 약 4년 여간 홍삼한방타운을 운영해 온 업체다. 운영기간 동안 홍삼한방타운을 내실있게 운영해 운영 전 6만여명에 머물던 홍삼한방타운 방문객을 올

리는 약 8만여명까지 끌어올리며 홍삼한방타운을 진안군 대표 관광명사로 자리 잡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진안군은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 공중, 재물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홍삼한방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군 관계자는 "위탁운영자와 협력해 진안군의 대표 관광명소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위험도로 개선 105억원 국비확보

장수군이 노단지구 위험도로 4개 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105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8일 장수군에 따르면 번암면 사무소 앞 국도19호선 구간(왕복1차로)급커브로 인한 시야확보 장애와 도로 폭 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상가 차량물진, 보행자 안전 위험에 노출돼 선형개량 사업 시급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영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익산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 방문 건의했으며 그 결과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개선사업 5개년 계획(2018~2022) 제6단계 수정계획에 반영돼 국비 총 105억원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번암면사무소 앞 국도19호선 구간과 번암면 대룡리 수척마을~원대툰마을, 장계면 장계리 장계사거리, 계남면 호덕리 장수IC, 장수읍 개정리 개정사거리를 대상으로 직선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도로 선형 사업이 2022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민이 안전하고 잘 사는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 아리

장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47억9000만원 지급

장수군은 쌀값 및 밭작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사 소득 안정 및 보전을 위해 6~7일까지 8075농가(5873ha)에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47억90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지난 8일 장수군에 따르면 쌀 고정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100만원이며 4199농가 3600ha에 35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밭농업 직불금은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평균 55만원(논이모작50만원) 단가로 지급되며, 2973농가 1783ha에 9억5000만원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에 ha당 65만원(초지40만원) 단가로, 903농가 430ha에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태풍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경영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진안군은 11일부터 진안읍 일일 단독주택 117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한다.

군은 그동안 진안읍내 다세대 공동주택에만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졌으나, 올해 단독주택까지 확대 추진기로 결정하면서 단독주택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1단계로 진안읍내(경찰서~마이팰리스1차 주변) 단독주택 117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했으며, 각 세대별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행사인 군산도시가스사는 도시가스 안전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가스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명기 전라선업과장은 "진안읍 일일에 도시가스 공급되면 주민들의 연료비가 절감되고 정주여건 개선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